



[라이프] “힘하면 가야지” 유통가 팝업스토어 열풍  
1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 “좌절 겪은 소상공인 여행사... 연대 강화로 권익보호 나설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대한중소여행사연대  
강순영 대표

“코로나19 더블링(신규 확진자 일주일 사이 두 배 증가) 이후 여행 문의가 확 줄었습니다. 원래 8월에는 예약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서울 강동구 명일역 인근에서 보성블루투어(하나투어 대리점)를 운영하는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가 내민 탁상 달력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7월에 날마다 빈틈 없이 기록된 여행 일정과 달리 8월엔 단 두 칸만 채워져 있었다.

지난달 29일 만난 강 대표는 분주하게 사무실과 연결된 셀프 빨래방을 오갔다.

강 대표는 “원래 빨래방 자리까지 다 여행사였다. 직원 6명을 고용하면서 여행사를 키워왔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은 한 달 내내 취소만 했다.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셀프 빨래방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 2006년부터 여행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엔 하나투어에서 평가하는 판매 지표에서 전국 1등을 한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골프 투어, 신혼여행, 패키지여행 등 해외 위주 영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여행도 병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휴업하지 않았는데, 손실보전금 못 받아 강 대표를 처음 만난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련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에서였다.

그는 856개 소상공인 여행사가 참여하는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로 나와, 휴업이 아닌 휴업으로 인정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여행사는 2020년 3월 이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2020년·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0원인데, 2020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조금 잡혔던 여행사들이 부가세 증명원에서 매출이 0원으로 잡혀 휴업 처리가 됐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휴업이 아니었다. 매출이 안 나와서 택배도 하고 다른 사무실 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그렇게 돼 버리니 좌절이 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윤호덕 민주당 의원실에서 수도·전기 요금이나 제주도 항공권을 팔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5000원) 내역을 찾아서 경정청구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여행업 현실 반영한 입법·정책 필요”

강 대표는 과거 패키지·단체 여행 위주의 시대는 가고 소규모·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여행사의 15인승 미만 법인 차량 허가 문제다. 현행법상 국내 여행사가 법인 차량으로 고객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 위반이다.

단체 여행객의 경우 상관 없지만, 소규모 여행객의 경우 21인승 이상의 전세 버스를 대여해야 하는 것. 상품의 단가는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렌터카법 상 여행사 직원이 렌터카를 빌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운전도 할 수 없다. 고객이 직접 운전해야 합법이다.

강 대표는 “연대는 여행사 직원들이 15인승 이하 여행사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인 차량을 여행객이나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전세버스업과 렌터카업과는 부딪히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 연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법 개정보다 특별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연대는 정부에도 소상공인 여행사의 현실에 맞는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강 대표는 “작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 생태계 전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IT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내놨다”며 “당시 13년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다. 문체부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구 명일역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가 운영하는 사무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사무실을 받을 무인 24시 셀프 빨래방으로 나눠 영업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 코로나 타격에 여행사-빨래방 겸업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놓이기도

### 현행법, 소규모 여행에 맞지 않아 여행사 현실에 맞는 정책지원 필요

### 중소 여행사 대변 법정단체 출범 박차 여행사 상품 모은 플랫폼 구축도

고용 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여행사의 자산인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고 나서 참여하니,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ICT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여행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협회와 협동조합으로 연대 강화”

강 대표는 연대를 넘어서서 중소 여행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 단체 출범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가 초대회장을 맡은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자본금이 충분한 업체 위주의 설계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여행업계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

조했다.

강 대표는 “내나라여행 40% 할인 사업”이라고, 여행객들에게 숙박비를 40%, 1인당 최대 16만원 할인해주는 사업이 있었다. 소상공인 여행사도 참여하려고 봤더니, 고객이 만약 11월 말 일정으로 10월 초에 예약하면, 고객은 10월 초에 결제함에도 여행사에는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제주도에 최하 1인당 50만원으로 20명을 보내면 1000만원이 한 달 동안 비는 거다.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입장 대변에만 그치지 않고 다변화되는 여행 시장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중소여행사협동조합을 조직해 출자원을 모집하고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소비자를 위해서도 여행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지금 누구나 여행업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현지 객실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비롯해 법인 차량 운행 문제 등과 함께 여행업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돌아온 김연경과 흥국생명, 새로운 배구 기대 /사진 뉴스스  
▲ 남자배구, 폴세트 접전 끝에 체코 꺾고 챌린저컵 3위

▲ ‘한산’은 5일 만에 200만, ‘탐간:매버릭’은 700만 돌파  
▲ 기후위기 걱정된다던 테일러 스위프트, 전용기로 탄소 배출 ‘1등’



▲ 리버풀, 맨시티 꺾고 16년 만에 커뮤니티실드 정상  
▲ ‘우영우 신드롬’, 일본·홍콩 등 20개국서 1위 /사진 뉴스스